

# 사비백제의 랜드마크 '정림사' 위상은?

##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 · 신라 · 고구려 · 중국 소조상 고찰

부여 정림사(定林寺)는 백제가 123년간 수도로 삼았던 사비도성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왕궁터로 추정되는 부여 관북리 유적과 궁남지 사이의 정중앙에 바로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서있다. 정림사는 사비백제의 랜드마크였던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왕실사찰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현재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림사의 역사와 위상을 살피는 문물교류전 '백제 정림사와 북위 영녕사(永寧寺)전'이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다.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농관용 산 소조상. 특별전에서는 중국 뤼양박물관의 소조상과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국 뤼양박물관과 함께 개최하는 기획전은 194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정림사의 유물을 집대성해 보여준다. 특히 정림사의 창건 시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낸다.

제1부 '정림사, 사비 도성의 중심에 서다'는 백제 성왕이 웅진(공주)에서 사비로 천도한 뒤 사찰이 세워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중국계 도자기와 다리 달린 비루, 연꽃무늬 수막새 등 생활 유물과 건축 부재를 함께 보여준다. 또 일제강점기 정림사지를 조사한 후 지사와 가즈오(藤澤一夫)의 발굴 일지를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

제2부는 '정림사, 백제 불교문화 교류의 상징'을 주제로 정림사에서 나온 소조상(塑造像)과 고구려, 백제, 중국의 소조상을 비교한다. 소조상은 흙으로 구운 형상으로

죽은 자를 매장할 때 함께 묻는 껌머거리가 아니라 목탑 내부 벽면이나 기둥의 장식물로 사용됐다. 특히 북위의 수도였던 뤼양의 영녕사 소조상 40점과 정림사에서 출토된 소조상 200여 점을 비교 고찰해 양국의 교류문화를 살핀다.

제3부 '정림사, 백제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백제 멸망 후에도 정림사가 명맥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당나

라 장수인 소정방이 석탑 탑신에 새긴 글의 탁본을 처음으로 모두 전시하며, '대장당초' (大藏當草) 명기와도 만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비백제와 북위에서 각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정림사와 영녕사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1)833-8563

노덕현 기자 noduc@ryunbul.com

## 돌아온 기와돌 '이우치 컬렉션' 전

2016년 7월 16일까지 서울 종로 유급와당박물관에서 '돌아온 외전 이우치 컬렉션'전이 열린다. '이우치 컬렉션'전에는 고구려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 평양 청암리 절터의 '도깨비얼굴 무늬(귀면문) 마루끝기와'와 평양 안학궁에서 출토한 '연화문수막새'를 비롯해 백제와 신라,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기와와 전돌 등 165점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유급와당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우치 컬렉션' 가운데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외전을 선보인다. 특히 고구려의 외전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보기 어려운 귀한 유물이다.

'이우치 컬렉션'은 일본 효고현의 아카시에서 살았던 내과의사 이우치 이사오(1911~1992)가 평생 수집한 한국의 외전을 뜻한다. (02)394-3451

노덕현 기자

##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저술 배경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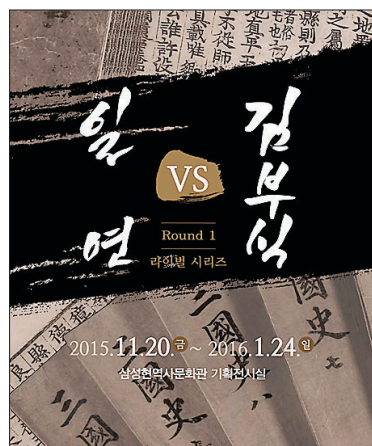
### 경산 삼성현역사관에서 '일연 스님 vs 김부식'展

우리의 역사 중 정사(正史)를 대표하는 <삼국사기>와 야사(野史)를 대표하는 <삼국유사>를 라이벌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특별전 '일연 VS 김부식'전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열린다.

내외외환의 시기였던 고려 중기, 고려 조정에서 김부식(1075~1151)을 포함한 11명의 편찬자를 두고 제작한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시각에서, 승려 일연(1206~1289)과 그의 제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삼국유사는 일반 백성의 생활상과 불교적 시각이 저술의 바탕이다.

이번 전시는 출신지역이나 신분, 삶 자체가 달랐던 두 역사가가 남긴 역사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다.

또 일연과 김부식의 관련 유물 150여 점과 하이얀의 화백의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한 판화 10점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이번 '일연과 김부식'전을 시작으로 '원효와 의상', '설총과 신라 유학자' 특별전을 연차적으로 기획해 역사의 라이벌적 관점에서 삼국현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053)804-7319

노덕현 기자

##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 가족은 사랑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 드라마 '응답하라 1988'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의 이름을 줄여서 응팔이라고 한다. 응칠(응답하라, 1997), 응사(응답하라, 1994)에 이은 일종의 세 번째 연작이다.

사건이지만 필자는 응팔이 전작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우스꽝스러운 정황들이 복고적이어서 정겹고, 둘째, 전작들에 비해 인물들의 동선이 가족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전편인 응사는 하숙집 주인인 성동일과 이일화의 집에서 딸인 성나경(고아라)과 쓰레기(정우), 칠봉이(유연석), 삼천포(김성균), 해태(손호준), 빙그레(바로), 조윤진(도희) 등이 모여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다시 말해 응사의 인물들은 성동일과 이일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응팔에는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 말고도 많은 가족이 등장한다.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이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은 김성균과 라미란이다. 성동일과 이일화 가족은 빛 보증을 잘못 서서 반 지하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반면, 김성균과 라미란 가족은 복권에 당첨되어 팔자를 고쳤다.

성동일과 이일화 사이에는 서울대에 다니는 보라(류혜영), 특공대(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진 덕선(혜리), 노안(老顔)의 외모를 지닌 노을(최성원)이 있다. 김성균과 라미란 사이에는 공부 빼고는 다 잘 하는 대입 우수생 정봉(안재홍)과 우등생인 정환(류준열)이 있다. 이 두 가족이 응팔의 두 기둥 역할을 한다.

골목 친구인 선우(고경표), 택(박보검), 동물(이동휘)의 가족도 등장한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선우는 편모슬 하에서 자라고 있다. 반면 바둑 천재여서 한 해 1억을 버는 택은 편부 슬하에서 자라고 있다. 덕선만큼이나 공부를 못하는 동물의 아버지는 쌍문고 교사이다.

응팔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집과 집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과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는 형국이다. 드라마의 시작은 골목 5인방 친구들이 자기 집의 음식을 친구 집에 배달하는 것이다. 수행여행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라미란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일화에게 덕선의 용돈에 보태 쓰라고 돈을 건네기도 한다. 그것도 옥수수가 담긴 바구니에 쓸쩍 편지봉투를 넣어서.

응팔을 보면서 필자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고 최인호 작가는 <산중일기>라는 산



가족은 숭고한 삶의 유전이 갖는 공동체인 것이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그 시대의 인연을 소개해 준다.

전작에 비해 폭이 넓어진 등장인물, 얽힌 인연도 많아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과 선이 모여 면을 이루는 관계



응팔에서 덕선은 인연 고리의 중심이다.

문집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서로 모르는 타인끼리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온전한 인격 속에서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서로서로 약속을 신성(神聖)하게 받아들이고, 손과 발이 닳을 때까지 노동으로 밥을 벌여 한 해 1억을 버는 택은 편부 슬하에서 자라고 있다. 덕선만큼이나 공부를 못하는 동물의 아버지는 쌍문고 교사이다."

최인호 작가의 말대로 가족은 또 하나의 수행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수행법은 다름 아닌 사랑을 수양하는 것이다. 가족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사회집단이다.

응팔에서 성동일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온다. 장례식장의 풍경은 일상사와 다르지 않다.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떠러는 웃기도 한다. 그러다가 장님이 나타났을 때 형제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필자는 붓다가 대에도 비구니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떠올랐다. 대에도 비구니는 붓다의 이모이자 여덟 적 유모였다. 사실상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붓다는 대에도 비구니의 몸 위에 꽃과 향을 뿌리고 이렇게 계승을 읊었다고 한다.

"일체의 현상은 덧없는 것 한 번 나면 반드시 다함이 있네.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나 이 열반이 가장 큰 즐거움 이네."

붓다의 일화에서 필자는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소중함 인연과 헤어져야 하는 법도 배웠다. 이렇듯 가족은 가장 비장하면서도 숭고한 삶의 유전(流轉)이 갖는 공동체인 것이다.

유용오 작가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영중 3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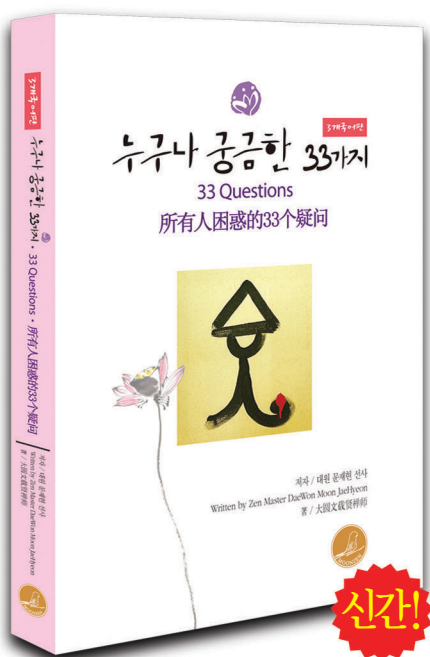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바른 진리 이야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 모든 이들이 가장 어렵고 궁금해 하는 문제, 삶과 죽음, 종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지표를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깨달은 이는 실증한 체험을 통해 만인을 마음의 평화와 죽음의 속박을 초월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책이 그 이변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 지구종말론은 사실입니까?
- \* 이 험난한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간!



## 불조정맥 제77조 건강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74번째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 031-534-3373 / 도서출판 문젠

##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 소이(SOY) 왁스 양초

##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0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 일본 직수입

- 심산자
- 란단향
- 후리지아
- 라일락향
-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